

스릴러 장르를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영화 여성 감독의 성과 분석 -〈화차〉와 〈용의자X〉를 중심으로

Analysis of performances of Korean Female Directors in the Thriller Genre Focusing on the Cases, “Helpless” and “Perfect Number”

김선아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Suna Kim(sakim30@naver.com)

요약

2000년 이전까지 한국 영화사를 통틀어 불과 8명에 불과했던 여성 감독은 한국 영화의 제작편수가 급증하고 신인감독이 대거 유입되면서 2007년에는 한 해에만 7명의 신인 여성 감독이 데뷔하였고, 2009년에는 13편의 여성 감독의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하였다. 그럼에도 지난 10년간 한국 영화 개봉편수를 기준으로 여성 감독의 작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5% 내외에 머물러 있고 그중 많은 여성 감독의 작품이 저예산 독립영화에 몰려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여성 감독들의 적극적인 탐색과 도전이 계속되었으며 그 결과 최근 스릴러 장르영화에서 여성 감독의 선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상업영화 여성 감독의 현황연구를 바탕으로 2012년 개봉한 스릴러 영화 〈화차〉와 〈용의자X〉의 사례를 분석한다.

■ 중심어 : | 한국영화 | 여성감독 | 상업영화 | 스릴러 | 흥행 |

Abstract

Until 2000, there were only eight female directors in Korean film history; however, the number of female directors has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new movies made and the entrance of new directors. In 2007, there were about seven new female directors and in 2009, there were released 13 movies directed by female. Even though the number of new movies and new entrants of female directors has augmented, the percentage of movies directed by female directors is about 5% of released Korean movies during the past ten years. Moreover, those female directors who enter the Korean film industry are mostly concentrated in low budget independent films. Yet, female directors have been continuously searching and challenging in order to find a way to communicate with general populations. As a result, recently female directors have been noticed in thriller films. This report will analyze how the thriller films directed by female directors have evolved since 2000 based on the status of female directors in commercial films. The report will analyze two thriller films “Helpless” and “Perfect Number”, released in 2012.

■ keyword : | Korean Film | Female Director | Commercial Film | Thriller | Box Office |

1. 서론

2012년 한국 영화 관객 수는 1억 1,461만 2,900명으로 전년 대비 3,174만 명가량 증가하여 38.3% 상승했고 1인당 한국영화 관람횟수는 2.25회로 역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영화 개봉편수는 2005년 83편에서 2012년에는 174편으로 늘어났다[1]. 한국 영화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한 2000년대의 고도화 단계를 ‘한국 영화 르네상스’라고 불러도 좋은 이유다[2]. 한국영화가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공을 거둔 2012년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는 총 6편이 개봉되었다. 그 중 30개 미만의 스크린에서 개봉한 독립영화가 <핑크코트>(신이가 감독), <홈 스위트 홈>(문시현 감독), <청포도 사탕, 17년 전의 약속>(김희정 감독)의 3편이며 구혜선 감독의 <복숭아 나무>는 201개 스크린에서 공개되어 33,884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500개 스크린 이상에서 공개된 영화 2편은 스릴러 장르인 <화차>(변영주 감독)와 <용의자 X>(방은진 감독)로 각각 전국관객 243만 명(화차)과 155만 명(용의자X)을 동원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176편의 한국영화가 개봉한 2012년 여성 감독의 영화는 6편이 개봉하였다. 지난 10년간 한국영화 개봉편수 기준 여성 감독의 영화는 전체 개봉편수의 평균 5%에 미치지 못한다.

표 1. 2003~2012년 한국영화 개봉편수 기준 여성감독의 작품 수

연도	개봉편수 (전체)	점유율(%)	여성감독 (개봉편수)	여성감독 작품 (%)
2003	65	53.49	4	6.15
2004	74	59.33	3	2.70
2005	83	58.71	2	2.40
2006	108	63.80	2	1.85
2007	112	50.00	6	5.35
2008	108	42.13	7	6.48
2009	118	48.68	13	11.0
2010	140	46.52	9	6.42
2011	150	51.86	5	3.33
2012	175	58.80	6	4.00
평균				4.96%

여성 감독이 만든 작품 수는 독립영화와 상업영화를 구분하기에 앞서 전체 작품 수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극장 개봉영화가 아닌 단편영화제에서 나타나는 여성 감독의 작품 수는 이와 크게 차이가 난다. 2013년 한 해에만 856편의 단편영화가 출품되어 단편영화 출품편수로 국내 영화제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장센 단편영화제에 지난 5년간의 본선 진출 작품의 남녀 성비를 살펴보면 여성 감독의 비율은 평균 28%[3]로 나타난다. 감독을 꿈꾸는 여성은 많지만 극장 개봉영화를 만든 여성 감독의 비율은 5% 정도로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극장 개봉영화 중 상업영화로 범위를 좁히면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전국 관객 1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여성감독의 작품 수는 총 8편에 불과하다. 2012년 한 해에만 1,000만 명을 동원한 영화가 2편이 나왔고 400만 이상 천만 미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7편 100만 이상 400만 미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23편이 나왔다. 2012년 한 해에만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32편이나 나온 것을 생각할 때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1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여성감독의 영화가 8편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업영화 안에서 여성감독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 않거나 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표 2. 전국 관객 100만 명 이상 여성 감독 영화

감독	제목	년도	관객동원
이정향	집으로	2002	419만
방은진	오로라 공주	2005	156만
김미정	공녀	2007	135만
박현진	6년째 연애중	2008	112만
임순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2008	402만
장유정	김종욱 찾기	2010	111만
변영주	화차	2012	243만
방은진	용의자X	2012	155만

독립영화와 상업영화의 구분 없이 영화 안에서 여성 감독들이 그려낸 세상과 여성의 모습은 하나 빠짐없이 모두 소중한 한국 영화의 자산이다. 그럼에도 산업적 측면에서 흥행성과를 기준으로 여성 감독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한국 영화산업에서 여성 감독의 활발한 활동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

다. 앞서 밝혔듯이 전체 여성 감독의 작품 수가 남성 감독의 작품 수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고 흥행 성공을 거둔 작품의 수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점차 여성 감독의 영화들이 격변하는 한국 영화산업에서 대중적 접점을 찾기 위하여 장르적 도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으며 그 결과 성공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2000년대 이후 2012년까지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중 관객 1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작품은 총 8편으로 스릴러/공포 장르가 4편, 로맨틱 코미디가 2편, 가족 드라마 1편 그리고 스포츠 드라마가 1편이다. 한국 영화 여성 감독의 흥행 성공사례가 스릴러와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스릴러 장르 영화가 4편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아시아여성학센터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한국 영화 산업에서의 여성 감독의 위상과 전망」에서는 한국 영화 산업의 성장과 여성 감독의 현황을 소개하며 한국 영화 여성 감독을 크게 독립영화 진영과 상업영화 진영으로 구분하되 현실적으로는 상호간의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여성이 처한 현실과 억압을 스릴러 장르의 외피를 빌려 이야기하는 여성 감독의 영화가 늘어나고 있음을 <궁녀>(김미정 감독)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여성 감독의 영화가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를 위해서 스릴러/공포와 같은 장르적 외피가 하나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남성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로부터 여성의 존재를 복원하는 작업을 공포와 스릴러의 결합이라는 더 대중적인 접근을 통해 시도한 <궁녀>의 사례는 여성 감독 데뷔작으로는 드문 143만이라는 흥행스코어와 함께 2007년의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2007년 <궁녀> 이후에도 여성 감독이 만든 스릴러 영화의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0년대를 관통하는 뚜렷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성 감독의 상업 장르영화 안에서의 꾸준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산업에서의 여성 감독의 현황과 장르에 따른 사례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본고에서는 많지 않은 여성 감독의 상업 영화 성공사례 중 스릴러 장르 영화가 절반 이상을 차

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한국 상업영화에서의 대중적 접점을 찾기 위한 여성 감독의 끊임없는 탐색과 도전이 여성 캐릭터를 이용한 새로운 장르영화를 만들려는 산업의 욕망과 스릴러 장르에서 만나 대중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90년대 후반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의 한국영화 여성 감독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스릴러 장르의 흐름을 짚어본다. 그리고 2012년 개봉영화 <화차>와 <용의자X>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여성 감독이 만든 스릴러 영화의 흥행 성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영화 흥행 요인 예측에서 개인적 의사 결정 과정과 관련한 행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적 접근법(communication theory approach)과 영화 산업의 측면에서 영화 흥행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경제적 접근법(economic approach)이 가진 공통된 특성을 바탕으로 상업영화에 유의미한 변수로 스크린 수, 관객평가, 장르를 제시한 연구결과[5]와 한국영화 흥행 결정 요인으로 스크린 수, 온라인 평점, 장르, 개봉시기, 관람등급 등의 다양한 요인을 제시한 연구 결과[6]를 참고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영화 흥행 예측 요인과 한국영화 흥행 결정 요인으로 선행 연구에서 각각 제시된 조건들을 검토하여 <화차>와 <용의자X>의 스크린 수, 관객평가(온라인 평점), 장르, 개봉시기 및 배급사, 관람 등급을 분석하고 감독의 인터뷰, 영화 비평, 기사 등을 참조하여 영화를 둘러싼 콘텍스트(context)를 폭넓게 살펴본다.

'영화의 상업성은 영화의 제작 단계에 앞서 기획 개발 단계에서 결정'되며 기획 개발 단계에서의 상업적 검증을 위해서는 '많은 텍스트들과 문화 전반의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7]. 여성 감독의 상업영화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획 개발 단계에서의 상업적 검증이 매우 중요하며 본 연구의 논의들이 이후의 여성 감독 영화를 기획·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장르의 틀을 찾아내고 대중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본 론

1. 90년대 후반에서 현재까지 여성감독의 현황 및 시기별 장르영화들

1.1 '쉬리'와 '미술관 옆 동물원'

IMF구제금융의 정점에 있던 1999년 2월 개봉한 '쉬리'는 당시 한국 극장가 역대 최고 흥행작이었던 할리우드 영화 '타이타닉'의 흥행 기록인 480만을 경신하며 한국 영화 르네상스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쉬리'의 성공 이후 한국 영화계의 자신감이 날로 높아지며 새로운 기획과 도전이 이어지기 시작한다. 특히 이듬해 쉬리가 일본에서 개봉하여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1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고 18억 500만 엔의 흥행 수입을 올리며[8] 일본시장에서 한국 영화를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인식하게 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쉬리가 개봉하기 몇 달 전인 1998년 12월, 한국영화아카데미 4기 출신인 이정향 감독이 <미술관 옆 동물원>으로 데뷔, 서울 관객 417,472명을 동원하며 그 해 흥행 순위 5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다. <미술관 옆 동물원>은 특히 매우 발달한 상황 설정, 독특한 여성 캐릭터와 재치 있는 대사로 여성 감독이 가진 섬세한 재능과 한국 영화산업에서 여성 감독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1.2 2000년에서 2003년까지의 한국영화 고도성장기의 여성감독들과 <집으로>의 성공[9][10]

십 년에 한 번 등장할까 말까 하던 여성 감독들이 한 번 물꼬를 트기 시작하자 고여 있던 샘물이 팔팔 넘쳐나듯이 여성 감독의 숫자와 작품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2001년 정재은 감독이 <고양이를 부탁해>로 데뷔하며 작품에 대한 높은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임순례 감독이 차기작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02년에는 <버스 정류장>의 이미연 감독,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의 모지은 감독, <밀애>의 변영주 감독, <질투는 나의 힘>의 박찬옥 감독이 데뷔하여 총 4명의 신인 여성 감독이 등장했으며 <미술관 옆 동물원>을 만든 이정향 감독이 차기작 <집으로>를 만들어 서울 157만 명, 전국 420만

명이라는 큰 성공을 거둔다. 현재까지도 <집으로>는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 흥행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11]. 이로써 2002년은 4명의 여성 감독이 데뷔하고 400만 관객을 동원한 흥행 영화를 여성 감독의 손으로 일구어내는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이어 2003년에도 이연희 감독(...ing, 전국 483,828명), 이수연 감독(4인용 식탁, 전국 719,494명), 윤재연 감독(여고계담 세 번째 이야기-여우계단-, 전국 1,784,479명), 김은숙 감독(빙우, 전국 216,676명), 박경희 감독(미소, 전국 1,500명)등 5명의 신인 감독이 데뷔하였으며[12] 각각 흥행과 작품에 대한 평가에서 알찬 결실을 보았다. 이 시기의 스릴러/공포 장르 영화는 <4인용 식탁>과 여고괴담 세 번째 이야기-여우계단>이 있으며 로맨틱 코미디로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와 <...ing>가 제작되었다.

1.3 2004년에서 2006년까지의 여성 감독의 소강국면과 <오로라 공주>의 중요성

2004년도에서 2006년까지의 한국 영화산업은 놀라운 정도의 활황을 보였다. 2004년 시장 점유율 59.33%에 육박하고[13] 2006년에는 63.80%라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했다. 반면 이 시기의 여성 감독의 활동은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4년에는 변영주 감독의 <발레교습소> 한 편만 개봉하였고 데뷔한 여성 감독도 없었다.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세 작품이 개봉하였다. 2000년대 초반의 여성 감독의 작품들이 이정향 감독을 제외하고는 흥행에 계속 실패하면서 여성 감독에 대한 대중적 소통 능력에 산업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여성 감독의 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 배우 출신인 방은진 감독의 <오로라 공주>가 전국 156만 명을 동원하며 성공을 거둔 것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일이었다. 여성 감독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독립영화를 중심으로 여성 감독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성지혜 감독이 <여름이 가기 전에>로 데뷔, 전국 4,552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 영화는 2005년에 제작되었으나 2007년에 극장에서 개봉했다. 이후 한국 독립 영화계에서 여성

감독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2004년에서 2006년까지의 한국 영화산업 전반의 활황은 2007년 여성 감독 작품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으로 이어진다. 한편 한국 영화산업은 2006년 63.80%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2005년 60,322,686\$에 이르던 한국 영화 일본 수출액이 2006년 10,385,000\$로 -82.8%의 감소율을 보이며 그 하락의 징조를 뚜렷이 드러내기 시작한다[14][15].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여성 감독 영화는 앞서 강조하였듯이 방은진 감독의 <오로라 공주>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멜러, 로맨틱 코미디에 집중되어 있던 한국 상업영화 여성 감독의 영토를 스릴러 장르에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1.4 2007년부터 2010년 한국 영화의 부진과 여성 감독의 스릴러 영화 <공녀>의 성공

한국 영화산업은 2007년도 시장 점유율이 50%를 기록하며 하강 국면에 접어들다. 이후 2010년까지 40%대에 머물며 저예산 영화가 급증하는 등 제작 환경이 급변한다. 2007년에 데뷔한 여성 감독을 극장 개봉 기준으로 보면 총 5명이고 개봉 작품 수는 총 6편에 이른다. 앞서 말한 대로 2004년에서 2006년에 걸친 활황기에 기획·제작된 여성 감독의 영화들이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대거 극장에 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작품편수와 여성 감독의 숫자가 늘어나는 동시에 여성 감독의 작품이 저예산 독립영화에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2007년 6편의 여성 감독 작품 중에서 스크린 수 100개를 넘는 작품은 한 편도 없었으며 30개 스크린 미만의 소규모로 배급된 영화가 절반을 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져 2008년 개봉된 여성 감독 영화 7편 중 4편이 스크린 수 10개 미만으로 배급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영화의 일본 수출액이 급감한 것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수출액의 증대에 힘입어 상승한 한국 영화 제작비의 거품이 꺼지면서 저예산 영화의 제작편수가 늘어나 시작한 것이다. 저예산 영화의 제작편수 증가에는 한국 영화산업의 구조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고가의 필름으로 촬영하던 영화 제

표 3. 2007~2010년 개봉기준 한국 여성 감독 영화의 스크린 수와 관객수[16-19]

	감독	제목	스크린수	전국관객수(명)	
2007	성지혜	여름이 가기 전에	4	4,552	
	김희정	열세살 수아	7	6,719	
	김진아	두 번째 사랑	25	80,248	
	김소영	방황의 날들	2	1,285	
	이연희	어깨 너머의 연인	48	301,153	
	김미정	공녀	83	1,438,531	
2008	임순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418	4,044,582	
	박현진	6년째 연애중	327	1,123,294	
	조은희	내부 순환선	1	342	
	김태희	동거, 동락	8	5,224	
	이경미	미쓰 홍당무	290	532,235	
	김은주	여름, 속삭임	8	1,351	
	이한나	슬리핑 뷰티	3	337	
2009	홍지영	키친	179	140,744	
	고태정	그녀들의 방	1	301	
	이숙경	어떤 개인 날	1	488	
	황수아	우리 집에 왜 왔니	211	217,502	
	부지영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10	20,975	
	최지영	바다쪽으로 한뼘 더	6	2,501	
	김소영	나무 없는 산	35	7,721	
	윤재연	요가학원	251	268,477	
	임순례	날아라 펭귄	45	20,369	
	강미자	푸른 강은 흘러라	3	315(319)	
		박찬욱	파주	131	130,760 (131,171)
		우니 르콩트	여행자	59	17,204 (18,580)
		안선경	귀향	2	194
2010	권지연	비밀애	276	164,472	
	김정경	경	4	901	
	구혜선	요술	33	5,993	
	성지혜	여덟 번의 감정	2	933	
	이서균	된장	112	45,165	
	임순례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88	16,096	
	신수원	레인보우	10	2,693 (2,756)	
	김효정	춤추는 동물원	5	764(801)	
	장유정	김중욱 찾기	442	1,072,886 (1,113,333)	

작 시스템이 디지털로 전환되며 영화 제작의 접근이 용이해진 것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 할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제작 영화 중 70억 이상의 제작비를 쓴 대형 영화는 예년의 1/3 정도로 그 수가 감소했고 10억 원 미만의 저예산 영화는 전년보다 10편이나 증가하여 전체 개봉 영화의 30%를 차지했다[17]. 저예산 영화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감독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전통적으로 여성 감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와 더불어 본고에서 한국 영화 여성 감독의 새로운 특징으로 주목하고 있는 여성 감독 스릴러 영화의 약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2007년에는 김미정 감독의 <공녀>가 개봉하여 143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여 <오로라 공주>에서 시작된 여성 감독 스릴러 영화의 성공을 이어나간다. 스릴러 영화 외에도 이연희 감독의 <어깨 너머의 연인>(2007년), 박현진 감독의 <6년째 연애중>, 장유정 감독의 <김종욱 찾기>(2010)등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만들어져 <6년째 연애중>과 <김종욱 찾기>는 각각 전국 관객 100만이 넘는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 외에 2008년 개봉하여 400만이 넘는 큰 성공을 거둔 임순례 감독의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여성 핸드볼 선수들의 애환을 담아낸 스포츠 드라마로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럼에도 몇몇 흥행작품을 제외하고는 개봉과 1, 2개에서 10개 미만인 독립영화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은 한국 여성 감독 영화가 급변하는 한국 영화산업의 지형 변화 안에서 많은 숙제를 안고 있음을 말해준다.

1.5 2011~2013년 상반기까지 한국 영화의 재도약과 〈화차〉, 〈용의자X〉의 등장

2011년 한국 영화 시장 점유율이 50%를 다시 넘기 시작하면서 2012년에는 58.80%로 회복했고 2013년 상반기에는 한국 영화 관객 수 5,556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00%가 상승하며 역대 상반기 관객 수 기록을 경신했다. 2013년 상반기에만 3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한국 영화가 6편이 등장하는 등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여성 감독의 영화로는 2012년 <화차>와 용의자X>가 성공하며 한국 여성 감독 스릴러 영화의 성공 흐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에 관한 심리적 디테일을 다루는데 능숙한 여성 감독의 장점이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스릴러 영화와 만나서 시너지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에 관한 심리 묘사에 집중하여 내러티브 중심이 아닌 인물의 감정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를 만들 경우 앞서 저예산 독립영화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

표 4. 2001~2012년 상반기까지 개봉기준 한국 여성 감독 영화의 스크린 수와 관객수[1][20]

	감독	제목	스크린수	전국 관객수(명)
2011	남다정	플레이	66	12,528 (12,542)
	허은희	심장이 뛰네	8	677
	이정향	오늘	414	131,896
	전소현	기타가 웃는다	2	1,222
2012	이영미	사물의 비밀	58	8,733 (8,757)
	신아가	밍크코트	13	2,731
	변영주	화차	548	2,435,211
	문시현	홀 스위트 홀	5	297
	김희정	청포도사탕, 17년전의 약속	20	1,600
	방은진	용의자X	553	1,552,055
구혜선	복숭아 나무	201	33,884	

이며 억압을 받고 있는 여성의 현실을 스릴러 장르의 틀 안에 녹여내면 대중적인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장르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합이 2012년 여성적 시각과 스릴러 장르의 결합이란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 한국 여성감독 흥행작과 스릴러영화의 성과

2012년 한 해에만도 1,200만 명을 동원한 영화가 2편이 나오고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32편에 달하는 성공에 비하여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여성 감독의 영화가 8편에 불과한 것은 아쉬운 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8편의 성공은 어려운 여건에도 꾸준히 도전해 온 여성 감독들의 노력이 거둔 소중한 결실이기도 하다. 또한 ‘많은 여성 감독의 영화들이 섬세한 감수성으로 소수자의 관점과 목소리를 담아냄으로써 한국 영화를 풍부하게 만들어왔고 다양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4]. 그러나 한국 여성 감독들이 더 자유롭고 활발하게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화산업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2012년 오랜만에 돌아온 두 명의 중견 여성 감독들이 만든 두 편의 스릴러 영화가 거둔 성과는 앞으로의 여성 감독들이 상업영화로의 성공적 진입을 위한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일 것이다.

2. 사례

2.1 배경소개

본고에서는 한국 여성 감독 스틸러 영화 중 2012년에 개봉한 <화차>와 <용의자X>를 다룬다. 이를 위해 먼저 두 편의 영화가 가진 공통적인 배경을 산업적 배경, 기획 배경, 장르적 배경으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이 두 편의 영화가 개봉한 2012년의 한국 영화를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2012년의 한국 영화는 2007년~2008년 마이너스 수익률 40%를 기록하던 침체의 늪을 벗어나 투자 수익률 13%를 기록하며 2006년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하였다. 2012년의 영화 1인당 관람횟수는 3.8회로 2011년의 3.1회로 회복되던 수치를 많이 끌어올렸다. 1인당 한국 영화 관람횟수는 2.25회로 역대 가장 높은 기록을 남겼다[1]. 한국 영화가 내수시장을 확대하며 일본 수출의 부진으로 타격을 입었던 2007~2008년의 침체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해였다.

둘째, <화차>와 <용의자X>는 모두 일본 추리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된 기획 배경을 갖고 있다. <화차>는 일본 작가 미야베 미유키의 사회파 걸작 <화차>(원제:火車)을 영화화한 작품이며 <용의자X>는 2006년 일본 나오키상을 수상한 히가시노 케이코의 유명 추리 소설 <용의자X의 헌신>(원제:容疑者Xの献身)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두 작품 모두 일본에서도 영화로 만들어져 성공을 거둔바 있다. 원작의 유무와 형태가 영화 흥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영화의 장르, 서사구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화 원작은 영화 흥행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원작이 가진 장르의 영향력이 영화의 흥행결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두 편의 일본 소설이 한국에서 여성 감독의 영화로 만들어져서 성공을 거둔 배경에는 탄탄한 내러티브와 서스펜스를 장착한 원작 소설의 스틸러 장르적 성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한국 상업영화에서 스틸러 장르가 가진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는 시점에서 나온 작품이라는 점이다. 스틸러는 '조마조마한 감정(thrilling)과 긴박감(suspense)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물 일반'을 가리키며

범죄·수사·추리물과 뚜렷이 변별되지 않으면서 실화·희곡·만화·창작 시나리오 등의 원천 스토리와 다양하게 접속하고 확대 재생산된다[22]. 스틸러는 2003년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을 시작으로 2008년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가 크게 성공하면서 한국 상업영화의 주요 장르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2005년 방은진 감독의 <오로라 공주>, 2007년 원신연 감독의 <세븐 데이즈>, 2010년 장철수 감독의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2011년 안상훈 감독 <블라인드>, 손영성 감독 <의뢰인>, 2012년 김휘 감독 <이웃 사람>, 정병길 감독 <내가 살인범이다> 등이 좋은 흥행 성적을 거두며 한국 영화의 핵심 장르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화차>와 <용의자X> 역시 한국 스틸러 장르 영화의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일본 원작 소설이 가지고 있는 탄탄한 내러티브를 중견 여성 감독의 섬세한 연출력을 통해 한국 상황에 맞게 가공하여 성공을 거둔 것이다. 여성 감독들이 한국 스틸러 영화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또 하나의 공통 배경은 한국 스틸러 영화가 가진 독특함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스틸러 영화는 장르 구조가 발달한 할리우드의 영화와는 다소 다르게 멜로드라마와의 하이브리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런 현상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이른바 '모성 스틸러'라는 하위 장르로 <오로라 공주> (방은진, 2005), <세븐데이즈> (원신연, 2007), <마더> (봉준호, 2009), <심야의 FM> (김상만, 2010)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23]. <화차>와 <용의자X> 역시 기본적으로는 스틸러 장르 구조를 캐릭터 설정과 플롯의 큰 틀로 활용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각각 '사랑하는 약혼자의 실종'과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여성에 대한 헌신'이라는 멜로드라마의 설정이 중요하게 사용된다. 이러한 한국 스틸러의 여성 캐릭터를 활용한 멜로와의 하이브리드 경향이 여성 감독들이 스틸러 장르에서 약진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화차>와 <용의자X>는 한국 영화가 재도약을 맞이한 2012년 일본에서 이미 상업적으로 검증받은 유명 추리소설을 영화화 한 작품이다. 장르적으로는 지난 몇 년간 한국 관객들에게 높은 신뢰를 구축해온 스틸러 장르로 특히 멜로드라마와의 하이브리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국 스릴러 영화의 특징을 이어간 작품이다. 한국 영화산업의 호황기에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원작을 바탕으로 대중적 접점이 많은 장르를 활용하여 만든 상업영화인 것이다. 또한, 상업적·기획적·장르적 접근을 통해 영화적 재미와 더불어 감독의 주제의식과 특유의 감수성을 담아내는 데 성공한 작품이기도 하다.

2.2 〈화차〉

변영주 감독은 1993년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1995년 <낮은 목소리>, 1997년 <낮은 목소리2> 등의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낮은 목소리>는 1995년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오가와 신스케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변영주 감독은 2002년 <밀애>, 2004년에는 <발레교습소>를 만들었다. 두 편 모두 흥행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8년 후인 2012년 <화차>를 선보이며 전국 관객 243만 명을 동원하는 큰 성공을 거둔다.

표 5. 〈화차〉의 분석기준

기준	내용
스크린 수	548개
온라인 평점	7.82(개봉전 9.35)
개봉시기	2012.03.08
배급사	필라멘트 픽처스
관람등급	15세 관람가

<화차>는 전국 548개 스크린에서 개봉하여 2,435,211명이 관람 18,450,760,000원의 박스 오피스를 거둬들이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화차의 스크린 수 548개는 2012년 흥행 1위를 기록한 <도둑들>이 1,072개, 2위 <광해, 왕이 된 남자>가 810개, 3위 <늑대소년>이 706개였던 것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한국영화 흥행 순위 8위인 <건축학 개론>이 593개, 9위 <댄싱 퀸>이 534개, 10위 <부러진 화살>이 453개에서 상영된 것을 볼 때 한국 상업영화 기준으로 적정 규모의 스크린에서 배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1].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온라인 평점은 개봉 전 9.35에서 개봉 후 7.82로 하락하였다. 총 5,766명이 참여했으며 그중 여성 52%, 남성 48%로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았고 평점 역시 여성 8.26, 남성 7.35로 여성관객에게 더 좋은 반응을 얻었다. 남성의 첫사랑에 관한 영화로 비슷한 스크린 수에서 개봉한 <건

축학 개론>이 여성 41%, 남성 59%의 참여율로 여성 8.37, 남성 8.84로 남성 관객의 평가가 높게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화차>가 여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데 성공한 영화였음을 알 수 있다. 베스트 댓글은 “살인은 부당했지만.. 여자의 인생은 참 슬프네요 기구하고... 남자를 위해 마지막에 사랑을 하지 않았다고 한 거 같아요... 사실은 누구보다 행복해지고 싶으면서...”, “누구라도 강선영의 상황에 처해진다면 강선영을 비난하지 않은 못할 것 같다” 등에서 보듯이 주인공(김민희 분) 여성 캐릭터에 공감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화차>가 개봉한 2012년 3월은 2012년 중에서 총 관객 수가 가장 낮은 달이었다. 전체 관객 수는 적었지만 다양한 한국 영화들이 개봉하면서 한국영화 점유율은 60.0%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비수기인 3월에 개봉하는 경우 스크린 수를 비교적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관객 반응이 좋을 경우 장기 상영에 들어갈 수 있다. 화차보다 2주 늦게 개봉한 <건축학 개론>의 경우 입소문을 타고 4월까지 이어서 장기 상영되며 전국 4,110,645명의 관객이 관람했다. <화차>를 배급한 필라멘트 픽처스는 소규모 영화를 배급하는 CJ E&M의 브랜드이다. 2012년 한국영화 흥행순위 10위권 내의 작품이 거의 한국영화 배급사별 점유율 1위~4위까지의 배급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볼 때 한국영화 흥행성과 배급사의 상관관계는 유의미성을 가지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화차>가 소규모 배급사에 의해 배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힘과 한국 관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스릴러 장르의 영화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봐도 좋은 이유다.

2.3 〈용의자X〉

방은진 감독은 <오로라 공주>로 15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용의자X>와 함께 관객 100만 명을 넘는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 8편 중 2편을 연출한 배우 겸 감독이다. <오로라 공주>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여성 감독의 스릴러 영화의 성공적 진입의 초석을 다진 작품으로 특히 한국 스릴러의 하위 장르로 구분할 수 있는 ‘모성 스릴러’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두 편의 스릴러 영화를 만들어 관객과의 소통에 성공한 방은진 감독과

<용의자X>의 사례는 한국 상업영화 여성 감독이 한국 영화 산업에서 어떻게 장르를 이용하여 대중과 소통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용의자X>는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범죄 스릴러의 공식을 살짝 이탈해, 장르의 범칙으로는 감쌀 수 없는 섬세한 톤을 풀고, 캐릭터의 감정과 감독의 감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생겨나는 이미지’의 잔상을 남긴다는 평가를 받았다[25]. 장르의 틀 안에서 멜로와 섬세한 이미지의 조화를 시도한 방어진 감독의 연출은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스릴러라는 장르의 외피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한국 여성 감독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표 6. <용의자X>의 분석기준

기준	내용
스크린 수	553개
온라인 평점	7.67
개봉시기	2012.10.18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관람등급	15세 관람가

<용의자X>의 스크린 수는 553개로 앞서 2012년 개봉했던 <화차>, <건축학 개론> 등과 비슷한 규모로 적정 수준의 스크린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 관객 1,552,055명이 관람 11,241,013,000원의 박스오피스를 올렸다[1]. 온라인 평점은 7.67로 높지 않은 편이며 참여율은 여성 50%, 남성 50%로 같았으나 <화차>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8.15, 남성이 7.32로 여성의 평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참여인은 총 4,964명으로 <화차>보다 낮았다. <용의자X>가 개봉한 10월은 66.5%의 높은 한국 영화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9월에 개봉한 <광해, 왕이 된 남자>가 10월에도 장기 상영에 들어가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데 기여했다. 2012년 전국매출 점유율 36.7%로 1위를 한 씨제이이엔엠주식회사(CJ 엔터테인먼트)가 배급했다.

2.4 <화차>와 <용의자X>가 갖는 의미

1,200만 명 이상이 관람한 <도둑들>과 <광해, 왕이 된 남자> 외에도 700만 명을 동원한 <늑대소년> 외에도 400만 명에서 500만 명 사이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가 6편이나 나왔던 2012년의 한국 영화가 거둔 화려한 성적을 감안할 때 전국 243만 명을 동원한 <화차>와 전국 15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용의자X>를 성공작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따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 영화는 각각 3월과 10월 비수기에 개봉하여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 비교적 앞서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화차>의 경우는 <러브픽션>, <건축학 개론>, <가비> 등과 1,2주 간격으로 개봉하여 <러브픽션>과 <가비>를 앞서는 성적을 거두었으며 <용의자X>는 일주일 먼저 개봉한 <회사원>, <점쟁이들>과의 경쟁 구도에서 가장 높은 흥행 성적을 거두었다.

<화차>와 <용의자X>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첫째, 두 명의 중견 여성 감독의 귀환이라는 점이다. 다큐멘터리로 출발한 변영주 감독은 2002년 <밀애>와 2004년 <발레교습소>를 만들고 8년 만에 <화차>로 돌아왔다. 두 편의 흥행에서 그다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다음 상업 장편영화를 만들기까지 8년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오랜 시간 배우로 활동해 온 방어진 감독은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에서 연출수업을 새롭게 받은 후 2005년 오로라 공주로 데뷔했다. 15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작품을 만들기까지 7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녀들이 다음 영화를 만들기까지 기다린 7, 8년의 시간 동안 한국 영화산업은 많은 산업적 부침을 겪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녀들이 영화를 만들었던 2004년~2006년의 활황기를 거쳐 2007년 일본 수출액 감소로 침체를 겪었다. 제작방식도 필름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저예산 독립영화의 제작편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한국영화의 침체는 2011년 이후 시장점유율 50%를 넘기며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두 명의 중견 여성 감독이 각각 8년, 7년 만에 새로운 영화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영화산업이 침체를 벗어나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도 요인의 하나일 것이다. 여성 감독뿐만이 아니라 남성 감독들도 다음 작품을 만들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아이템을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몇 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곤 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여성 감독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감독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어

려움이 남녀 불문 공통의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장편 개봉영화 기준 여성 감독의 작품 수가 지난 10년간 평균 5% 미만이라는 점이 걸리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유수의 단편영화제에 출품하는 여성 감독 작품의 비율이 지난 5년간 28%에 이른다면 극장 개봉영화에서의 비율도 그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거나 한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매우 현격히 벌어진다. 감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남녀 모두에게 어려운 일인 동시에 여성 감독에게 더욱 힘든 일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역시 2012년 상위 250편의 국내 총 수익을 거둔 영화에서 활동한 감독, 프로듀서, 작가, 촬영자, 편집자 중 여성의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여성감독은 9%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표적인 독립영화제의 하나이자 할리우드로 가는 수송관으로 알려진 선댄스 영화제에 참가한 여성 감독은 장편 극영화 부문에서 17%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상업영화계와 독립영화계에서 여성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댄스 영화제에서 2012년 발간한 보고서 <독립 여성 필름메이커의 장애요인과 기회에 관한 연구>에서는 선댄스 영화제에 참가한 여성 감독과 프로듀서들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와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 필름메이커들이 주류 상업영화계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장애요인에 직면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남성 위주의 네트워크’, ‘현장에서의 고정관념’, ‘일터와 가정의 균형의 어려움’, ‘배제적인 고용관행’, ‘산업문화에서의 저항선’ 등이 그것이다[24]. 한국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많은 여성 감독들이 결혼과 육아로 인해 공백기를 갖고 그 동안 산업에서 쌓아온 경력과 네트워크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또한 공백을 거치고 다시 영화계로 복귀한 후에 다시 처음부터 출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25]. 명필름의 심재명 프로듀서는 “투자사나 제작자들은 여성감독의 상업영화에 대한 감각이 남성 감독의 그것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 지금은 촬영 현장이 과거와 달리 전성터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독에게서 카리스마나 통솔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남성감독을 더 선호”한다고 말한다[26]. 이러한 상황을 직시할 때 어려운 장벽을 뚫고 상업영화계에 진입한 여성감독들이 7, 8년의 공백과 준비기간

을 거쳐 <화차>와 <용의자X>를 들고 다시 찾아왔다는 것은 매우 반갑고 의미 있는 소식이다. 더욱이 최근 한국 영화산업에서 대중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장르인 스릴러 장르를 통해 귀환하여 각각 243만, 15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여성감독의 영화산업의 장르적 지형 안에서 함께 발을 맞추어 나가고 있으며 여성 감독이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에서 상대적 강점이 있다고 보는 기존 산업의 인식의 틀을 벗어나 여성 감독 영화의 장르 영토를 확장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고무적이다. 즉, 앞으로의 한국 영화산업에서 여성 감독이 멜로, 로맨틱 코미디뿐만이 아니라 스릴러 장르의 틀 안에서도 대중적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며 더불어 다른 장르 안에서도 여성감독의 영토가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적으로 열세인 여성 감독의 영화 안에서 이와 같은 장르적 확장과 대중성 성과는 미래의 여성 감독들의 영화산업 진입에 이정표가 되고 산업 내부에서 호의적 시선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화차>를 만들며 고민했던 많은 것들 중 그녀(들)의 목소리, 그녀(들)의 언어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부분이 있었다[27] 는 변영주 감독의 고민의 결과를 담은 <화차>와 ‘우리 영화에서 화선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 영화의 느낌이나 모양새가 달라질 것[28]’이라는 방은진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보듯이 두 명의 여성 감독은 스릴러라는 장르의 틀 안에서 여성 캐릭터의 존재를 고민하고 그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화차>와 <용의자X>는 기록적인 흥행성공을 거둔 작품은 아니다. 비평 면에서도 좋은 평가와 완성도에 대한 아쉬운 평가가 교차한다. 두 편 모두 스릴러라는 장르적 특성의 긴박감과 쫓깃쫓깃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을 얻었다. 그러나 두 편 모두 캐릭터의 설득력과 감정 흐름에 집중하여 호소력을 배가시켰다는 점에서 좋은 평을 얻기도 했다. <화차>의 경우는 주인공 ‘화선’역을 연기한 배우 김민희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용의자X>의 경우에도 미세한 감정 변화를 잘 표현한 배우 류승범과 이요원의 연기가 호평을 얻었다. 변영주 감독에 의해 포착된 ‘화선’은 거친 비가 내리는 세상 밖으로 내몰린 존재이다.

그녀가 왜 '선영'으로 살고 싶었는지 변영주 감독은 일본 원작의 스토리를 한국의 여성으로 변화시켜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전달한다. 스릴러 장르의 외피 안에서 여성 감독의 내밀한 시선에 포착된 여성 캐릭터의 존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또한 <용의자X>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주려는 남자의 절절한 멜로 스토리에 기대면서도 동시에 폭력적인 현실로 인해 비극적 상황에 처한 여성 캐릭터의 웅크릴 수밖에 없는 무표정한 처연함을 함께 포착한다. <용의자X>가 '원작의 본연의 재미 위에 진한 감성을 담았다[29]'는 평가를 얻은 이유이다. 이와 같이 작품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공존하는 가운데 두 작품 모두 공통적으로 캐릭터에 대한 섬세한 포착이 주목받았으며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성 감독의 감수성이 스릴러 장르의 외피를 통해 대중적 접점을 찾아 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변영주, 방은진 감독이 만든 <화차>와 <용의자X>는 1200만 관객 동원의 성공영화에 뒤지지 않는 2012년 한국 영화산업이 거둔 소중한 수확이다. 이러한 여성감독의 활약과 성공적인 상업영화로의 진입은 앞으로 더 많은 여성감독의 도전과 성공을 기대하게 하며 스릴러 장르 이외에도 여성에 관한 다양한 시선을 담은 새로운 그릇으로서의 다양한 장르 영화가 만들어질 미래의 한국 여성 감독 영화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한다.

III.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 영화 르네상스가 펼쳐졌던 2000년대 이후의 여성 감독의 등장과 활동을 상업영화와 장르를 중심으로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앞서 밝혔듯이 독립영화에서의 여성 감독의 활약은 여성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담아내는 소중한 자산이다. 그럼에도 상업영화 안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며 대중적 접점을 찾아 내려는 노력과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한국 영화 여성 감독 영화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8편 중 4편이 스릴러 장르에 집중되어 있음을 밝히고 2005년 <오로라 공주>의 등장과 이후 2007년 <공녀>, 2012년 <화차>와 <용의자 X>로 이어지는 한국 여성 감독이 만든 스릴러 영

화의 흐름을 짚어보았다. 위의 4 작품이 모두 관객 100만 이상 동원한 여성 감독의 작품에 포함되어 있음을 물론이다. 그리고 <화차>와 <용의자X>의 산업적·기획적·장르적 배경을 통해 두 편의 영화가 갖는 공통점을 도출해내고 두 영화가 한국 영화산업이 재도약을 맞은 호황기를 배경으로 검증받은 원작(일본)을 원천으로 삼아 한국에서 대중적 지지를 구축해온 멜로드라마와의 하이브리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스릴러 영화임을 알아보았다. 이것은 한국 여성 감독의 영화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밀한 감수성을 통해 영화로 만드는 단계에서 상업적 성공을 위해 산업적·기획적·장르적 전략을 구사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화차>와 <용의자X>라는 두 편의 영화는 세련된 상업 스릴러 영화인 동시에 여성 감독들의 고유한 여성적 세계관이 담긴 작품이기도 하다. 이는 본고에서 밝힌 대로 여성 감독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때 대중적 소통을 위해 장르를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여성 감독들의 꾸준한 탐색과 도전의 성과가 스릴러 장르에서 성공적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스릴러 외에도 로맨틱 코미디와 <집으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와 같은 개성적인 드라마들이 좋은 흥행 성적을 거두고 있다. 여성 감독이 만든 스릴러 장르 영화가 한국 영화산업에서 갖는 전략적 지점과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들이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영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획개발단계에서의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여성 감독의 영화 역시 이러한 다각적 검토의 틀 안에서 기획·개발되어야 한다. 장르는 진화와 융합의 과정을 겪는다. 한국 스릴러 장르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변화하는 한국 영화산업과 장르 영화의 지형도 안에서 여성 감독들의 탐색과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여성 감독의 영화가 여성 감독 자신들의 성공과 예술적 성취의 의미만이 아닌 여성적 세계관이 담긴 영화를 관객과 소통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스릴러 장르뿐만 아니라 여성 감독의 장르 영화들에 대한 전략과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영화진흥위원회, 2012년 한국영화산업결산, 2013.
 [2] 박장순, “한류와 수치로 본 한국영화 르네상스”, 국
 제한국언어문화학회논문지, 제2권, 제2호, p.155,
 2005.
 [3] 미장센영화제 사무국 내부자료
 [4] 안지혜, “한국영화산업에서 여성감독의 위상과
 전망”,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학술대
 회자료집, Vol.2008, No.4 pp.122-123, 2008.
 [5] 김소영, 임승희, 정예슬, “영화 유형별 영화 흥행
 성과 예측 요인의 비교 연구: 예술 영화와 상업
 영화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2호, p.390, 2010.
 [6] 박승현, 정원규, “한국 영화시장의 흥행결정 요인
 에 관한 연구:2006-2008년 개봉작품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9권, 제4호, p.243, 2009.
 [7] 임건중, “한국영화의 상업적 성공을 위한 기회개
 발단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72, 2012.
 [8] 서유정, 안성아, 황인석, “일본에 수출된 한국영화
 특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1호,
 p.387, 2008.
 [9] 영화진흥위원회, 2000년 한국영화산업결산, 2001.
 [10] 영화진흥위원회, 2001년 한국영화산업결산, 2002.
 [11] 영화진흥위원회, 2002년 한국영화산업결산, 2003.
 [12] 영화진흥위원회, 2003년 한국영화산업결산, 2004.
 [13] 영화진흥위원회, 2004년 한국영화산업결산, 2005.
 [14] 영화진흥위원회, 2005년 한국영화산업결산, 2006.
 [15] 영화진흥위원회, 2006년 한국영화산업결산, 2007.
 [16] 영화진흥위원회, 2007년 한국영화산업결산, 2008.
 [17] 영화진흥위원회, 2008년 한국영화산업결산, 2009.
 [18] 영화진흥위원회, 2009년 한국영화산업결산, 2010.
 [19] 영화진흥위원회, 2010년 한국영화산업결산, 2011.
 [20] 영화진흥위원회, 2011년 한국영화산업결산, 2012.
 [21] 이윤정, 신형덕, “원작의 유무와 형태가 영화 흥
 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
 권, 제6호, 2013.

[22] 황혜진, “스릴러 영화의 남성 중심적 서사에 대
 한 비평적 접근: <아저씨>와 <악마를 보았다>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22호,
 p.66, 2011(3).
 [23] 박인영, “2000년대 한국 스릴러 영화의 모성 재
 현 연구”, 영화연구, 제55호, p.203, 2013.
 [24] Stacy L. Smith, Ph.D., Katherine Poper, Ph.D.,
 & Marc Choueiti, “Exploring the Barriers and
 Opportunities for Independent Women
 Filmmakers”, Sundance Institute and Women in
 In Film Los Angeles, Women Filmmakers
 Initiative, Annenberg School for Communication
 & Journalism,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3, 2012.
 [25] 박지영, 여성영화인모임 사무국장 인터뷰
 [26] 변희원, “여풍 시대인데... 왜 천만 여감독은 없는
 걸까”, 조선일보, 2013.07.04.
 [27] 변영주, “그녀에게 주입한 현실의 공기”, 씨네21,
 2012.04.17.
 [28] 윤용섭, 방은진 감독 인터뷰, ‘용의자X로 7년만
 에 메가폰 방은진 감독’, 영남일보, 2012.10.19.
 [29] 김형식, “공식과 법칙을 넘어서는 이미지의 잔
 상”, 네이버 영화 주말극장 프리뷰, 2012.10.18.

저 자 소 개

김 선 아(Suna Kim)

정희원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법
 학과(학사)
- 2006년 2월 : 중앙대학교 첨단영
 상대학원(영화예술학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조교수

<관심분야> : 한국영화, 영화제작, 영화기획